

‘막강 화력’ 재규어스 3회 18점 대폭발

무등리그 8강 확정... 허버베이스볼 클럽·새사랑메디컬·아이프렌즈·베프스·F9수완O-lens·페가수스·재규어스·대한철강

광일리그 16강전 화순에슬레틱스·레드 워너스 승리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 진출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주차 경기가 21일 OB맥주공장 야구장에서 펼쳐졌다.

무등리그의 페가수스, 재규어스, 대한철강이 8강 마지막 세 자리를 가져갔다. 광일리그 16강 전에서는 화순에슬레틱스, 레드 워너스가 승자가 됐다.

무등리그 1경기에서는 페가수스가 11-3 역전승을 거뒀다. 페가수스는 1회 해양경찰교육원에 선취점을 내줬지만 2회 동점을 이룬 뒤 3-4회 각각 4점씩을 보태며 5회 콜드승을 기록했다.

세한기업재규어스의 화력도 화끈했다. 재규어스는 1-3으로 뒤진 3회 18점을 몰아내면서 19-6, 4회 콜드승으로 정진산업스카이를 제압했다. 대한철강은 아작스와 역전과 역전을 거듭한 접전 끝에 시간 제한으로 13-12, 1점차 승리를 거뒀다.

앞서 치러진 1주차 경기에서는 허버베이스볼 클럽, 새사랑메디컬, 아이프렌즈, 베프스, F9수완O-lens가 승리를 하면서 무등리그 8강에 선착했다.

광일리그 경기도 시작됐다. 화순에슬레틱스는 1이닝에만 14점을 뽑아내는 막강 화력을 과시하면서 22-4로 시드니에슬레틱스를 상대로 광일리그 첫 승을 장식했다.

레드 워너스는 김동욱을 앞세워 광주신야구단의 방망이를 묶으면서 8-0, 5회 콜드승을 만들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리그
◇1경기
해양경찰교육원 10011-3 (5회 콜드승)
01442-11

페가수스
▲승리투수:이석우
◇2경기
정진산업스카이 1023-6 (4회 콜드승)
0118X-19

세한기업재규어스
▲승리투수:홍길준
◇3경기
아작스 10335-12 (5회 시간제한 승)
21622-13

대한철강
▲승리투수:위동철

◆광일리그
◇1경기
화순에슬레틱스 24214-22 (4회 콜드승)

시드니에슬레틱스 1300-4
▲승리투수:박원식 ▲훈련:정진수(화순·4회 3점)

◇2경기
광주신야구단 00000-0 (5회 콜드승)

레드 워너스 0152X-8
▲승리투수:김동욱



21일 OB맥주공장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아작스와 대한철강 야구단의 경기. 5초 2사에서 2루타로 출루한 아작스의 김재희(왼쪽)가 조원경의 타석때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앞으로도 쭉욱~

광주FC 유소년 금호고, 전국대회 2관왕

‘울인 K리그 주니어’ 대전 시티즌 U-18에 2-0 완승... 남은 경기 상관없이 우승 확정

광주·전남 축구 꿈나무들이 전국을 제패했다.

프로축구 광주 FC의 유소년 클럽인 금호고가 올 시즌 두 번째 전국대회 우승을 장식했다.

금호고는 지난 20일 금호고에서 열린 ‘2014 울인 K리그 주니어’ 20라운드 대전 시티즌 U-18팀과의 경기에서 나상호의 멀티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15승 3무 1패(승점 48)가 된 금호고는 제주 유니타드 U-18팀과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제22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 이은 전국대회 2관왕이다.

금호고는 리그 첫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지만 18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 리그 최다연승(9경기), 최다득점(51골) 기록을 작성하며 값진 우승을 만들어냈다.

또 주부 나상호가 18경기에서 22골을 몰아넣으며 득점 1위에 오르는 등 득점 7위(정문철), 도움 2위(손민우), 공격포인트 1위(나상호)·5위(정문철)·9위(손민우) 등 기록 부문 상위권도 금호고의 차지였다.

금호고 최수용 감독은 “1무1패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응집력과 단결력이 좋아지면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뛰어진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중리고는 전남 드래곤즈 유소년 클럽이 접수했다. 전남 U-12 광양제철남초와 U-15 광양제철중은 권역별 주말리그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하며 리그를 마쳤다.

광양제철남초(감독 한창호)는 17승3무로 20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1위를 차지, 오는 10월3일부터 시작되는 2014 대교농놀이 초등고 축구리그 초등부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광양제철중(감독 김태영)도 광주전남 권역 주말리그에서 18승 1무 1패(승점 55)의 성적으로 리그 1위에 오르며 중등부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U-18 광양제철고(감독 변재섭)는 13승3무3패(승점 42)로 금호고에 이어 K리그 주니어 2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위가 눈앞에~

0:2→4:2 광주FC 후반 대역전극

K리그 챌린지 28R, 강원FC 누르고 3위 도약... 2위 안산과 승점 2점차

광주 FC가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는 대역전극을 펼치며 3위로 올라섰다.

광주 FC가 21일 춘천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강원 FC와의 K리그 챌린지 28라운드 경기에서 4-2 역전승을 거뒀다. 광주는 ‘대어’ 대전전에 이어 강원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챙기며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전반전 0-2의 열세를 4-2로 뒤집은 극적인 승리였다.

전반 5분 만에 최진호에게 선제골을 내준 광주는 전반 12분 김오규에게 두 번째 골을 내주며 0-2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3분 김호남이 골폭풍의 신호탄을 쏘았다.

강원 오른쪽 진영에서 전개되던 공격, 김호남이 골 에어리어 왼쪽에서 빠르게 치고 오르며 이종민의 패스를 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10분에는 문전에 있던 파비오가 이종민이 넘겨준 공을 오른발로 가볍게 타치하며 강원 골문을 갈랐다.

동점골의 주인공 파비오는 역전골까지 장식했다. 후반 21분 김호남이 골 에어리어에서 상대 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파비오는 상대 골키퍼 양동원을 속이고 오른발로 왼쪽 골문을 가르면서 3-2 역전극을 연출했다.

조용태가 골폭풍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후반 29분 역습상황에서 디에고가 왼쪽에서 빠르게 공을 몰고 강원 진영으로 침투했다. 반대편에 있던 조용태에게 넘겨진 공. 조용태가 뒤로 공을 빼며 상대 수비수의 흐름을 뺏은 뒤 왼발로 슈팅을 날리며 골문을 갈랐다. 점수는 4-2까지 벌어졌고, 지난 대전전에서 데뷔골과 함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던 디에고의 첫 도움이 기록됐다.

극적으로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10승10무8패(승점 40)가 되면서 대전(17승 6무3패·승점 58), 안산(12승6무7패·승점 42)에 이어 3위로 등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로 침투했다. 반대편에 있던 조용태에게 넘겨진 공. 조용태가 뒤로 공을 빼며 상대 수비수의 흐름을 뺏은 뒤 왼발로 슈팅을 날리며 골문을 갈랐다. 점수는 4-2까지 벌어졌고, 지난 대전전에서 데뷔골과 함께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던 디에고의 첫 도움이 기록됐다.

극적으로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10승10무8패(승점 40)가 되면서 대전(17승 6무3패·승점 58), 안산(12승6무7패·승점 42)에 이어 3위로 등극했다.

극적으로 승점 3점을 더한 광주는 10승10무8패(승점 40)가 되면서 대전(17승 6무3패·승점 58), 안산(12승6무7패·승점 42)에 이어 3위로 등극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